

세계경제와 한국농업의 성장동력

‘국제 곡물가격 상승·고유가’ 설상가상, 곡물수입의존도 높은 정부 부담 커
시장변화 대응 과제 다양, 새로운 도약 위해 정부·이해관계자 힘·지혜 모아야

세계경제와 농업의 좌표

새해부터 곡물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올해 세계의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밀·옥수수·콩 등 57개 자국산 농산물에 대해 새해부터 5~25%씩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곡물가격 안정과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곡물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렇듯 곡물의 수출을 제한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연초부터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정부도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축산업 및 식품산업부문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의 말처럼 공간의 제약은 이제 그 의미를 잃고 있다. 세계화의 틀 안에서 지구 어느 한 곳에서 나타나는 조그마한 변화가 나비효과(중국 북경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를 발휘하여 급속히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키워드로 본 농업분야의 시사점

올해 세계경제의 키워드는 ‘리스크 증대’ ‘다극화’ ‘신(新)사업 기회’ 등 세 가지다. 즉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위험)가 증대되고, 미국 일변도의 국제질서가 유럽연합(EU)·중국·러시아 등으로 다극화돼 가고 있다. 또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소비자 파워가 급부상하면서 ‘그린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기회도 확산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환경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기는 하나 환경 관련분

야에 대한 '신사업 기회'도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이 우리 농업분야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이 올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환경과 조화를 가장 잘 이루는 산업이 농업이다. 친환경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많은 미래학자나 농업 전문가들이 해온 바다.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나 농산어촌의 어메니티(농촌다움), 지역 특성과 경제를 아우르는 지연(地緣)산업이 올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농업과 전통문화, 농업과 역사, 농업과 환경, 농업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농업을 우리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올해 오지종합개발사업, 신 활력 사업 등을 기존 사업과 통합하여 시·군 등 지역단위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을 농촌 주민과 도시민들이 더불어 살고 편히 쉴 수 있으며, 전통문화가 보존·전수되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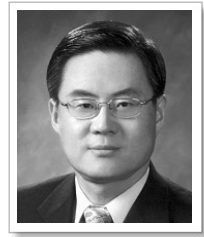
둘째, 환경이나 에너지 관련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는 농업분야에서도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미 농산물을 이용한 여러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옥수수 생산량의 30% 이상이 에탄올 제조에 사용되고 있고, 농산물에서 각종 제약 성분이나 재생에너지 등을 개발하는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과 에너지가 농업분야에서 나온다는 것은 선진국 거대 농기업들이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는 데서 알 수 있고, 많은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위협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금년에 증명될 것이다.

정부는 올해 농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려(07년 636억원→08년 1,051억원, 65% 증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 외부기관과의 공동 연구,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셋째, 환경을 중시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은 우리 식품분야에도 불어올 것이며, 그 결과 '지역 먹을거리' (로컬 푸드 :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뜻)에 대한 소비가 늘게 될 것이다. 농업이 세계화, 표준화되면서 대부분의 먹을거리가 글로벌 푸드화 되어가고 있는데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 등은 소비자의 건강을 알게 모르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중국산 농약만두 사건은 식품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글로벌 푸드에 대비되며 참 먹을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된다.

영국 런던에서는 향후 10년간 영국의 주요 학교나 병원·식당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은 150km 이내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도 거주지역에서 100마일(160km) 이내에서 나오는 농식품만 소비하자는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이 활발히 일어



김재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우리도 식품산업의 발전을 농업발전과
연계시켜 농업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국음식은 우리의 전통식품이며
우수한 성장동력 산업이고 새로
개척해야 할 블루오션이다.
한식의 세계화는 개방화로 침체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산지소(地產地消)’
운동으로 발전해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을 향후 5년간 30%로 높여
나가고 있다. 이 운동은 지역농업도 살리고 지
역경제도 활성화시키며 생태와 자연환경의 보
전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도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의 원조격인 신토불이(身土不二) 사상이
있으나 경제개발, 기업중심의 세계관과 급변
하는 세계화 추세에 밀려 진부한 개념으로 전
락되고 있는 느낌이다. 앞으로 환경을 중시하
는 세계경제의 변화는 효와 사랑으로 뭉쳐진
전통적인 가정의 중요성 또한 인식시켜줄 것
이다. 일터와 삶터가 분리되지 않는 농업, 가
족과 지역이 어우러지는 농업, 부모와 자식이
가족공동체를 이뤄 사는 농업이 친환경 농업
이다. 가족이 서로 가까이서 긴밀히 교류하는
‘새 가족(new family) 운동’이 새농업 운동과
어우러져 금년 한해에 활기차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농식품산업, ‘미래 농업·국가 발전’ 신 성장 동력

세계화의 틀 안에서 우리농업을 선진형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우선 ‘식품산업진흥법’과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6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에 흩어
져 있는 식품산업 관련 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농림부의 확대 개편 등에 관한 기사가 자주 언
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농업을 선진형 농업
으로 만들기 위하여 농산물의 최종 소비단계
인 농식품산업이 중요하며 농업의 범주가 식
품까지 포함하고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음식산업의 규모가 5,000조원(전 세계 총생산액의 10%)으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웃 일본과 중국 등 많은 강대국은 자국의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음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식품산업의 발전을 농업발전과 연계시켜 농업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한국음식은 우리의 전통식품이며 우수한 성장동력 산업이고 새로 개척해야 할 블루오션이다. 한식의 세계화는 개방화로 침체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국음식이 최근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한국음식을 칭찬하는 기사가 부쩍 늘고 있다. 미국 최고의 요리학교 가운데 하나인 뉴욕주 미국 요리학교(CIA :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존 나이호프(Nihoff) 교수는 “한국 음식은 건강식인데다가 독특한 향이 있어서 발전가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주 건강전문잡지인 'Health Magazine'은 2006년 3월 24일 한국의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소개하는 등 뉴욕타임스지를 비롯한 많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도 올해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식품 통계체계 정비, 품질인증제 확충 등 인프라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부문의 향후 과제

개방화로 가는 세계 식품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식품부문이 대비해야 할 과제는

다양하다. 우선 세계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우리 식품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세계적으로 악화되는 식품공급 여건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품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농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안전농식품 공급체계 구축은 기본과제이며 농식품인증,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등 농식품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식품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식품관련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식품시스템 개편의 핵심이 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도 필요하다.

또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해야 하고, 건강식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평가되는 우리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고 국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한식의 세계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식품부문의 급변하는 여건과 환경변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인식하고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품부문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한국 식품분야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의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위기의식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공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Y

